

장성군 제작 뮤지컬 '홍길동' 주연 슈주 성민·예성 인터뷰

“실존영웅의 사랑과 고뇌 보여주겠다”



성민

-그를 멤버가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 부담은 없다. 자신만의 홍길동을 소개한다.

▲성민=서로 자극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여주는 홍길동이 목소리나 연기면에서 부드러운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펴는 외유내강형이라면 예성이형은 카리스마 있고 강한 홍길동을 보여줄 듯하다.

▲예성=경쟁심 같은 건 없다. 성민이와는 음색, 외모, 표현하는 것 모두가 다르다. 내가 만들어내는 홍길동은 솔직하고 박력있는 모습이다. 반면 성민의 홍길동은 선량하고 온화한 느낌의 홍길동인 것 같다. 각각 다른 모습이일테니 기대해 달라.

-'남한산성'에 이은 두번째 뮤지컬인데 이번에도 창작 초연 뮤지컬이다.

▲예성=5년 동안 슈주 주니어로 활동하는 나에게 뮤지컬은 늘 즐겁고 새로운 도전이다. 창작 뮤지컬은 누군가가 완성해 놓은 작품이 아닌,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어 가는 거라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운다.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나.

▲예성=솔직히 뮤지컬을 하기 전까지는 홍길



장성군이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공동제작한 '홍길동'이 2월 18일부터 두 달간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첫선을 보인다. '홍길동'은 특히 슈주 주니어의 메인 보컬 예성(26)과 성민(24)이 주역으로 캐스팅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홍길동' 제작 발표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3일전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데다 뮤지컬 연습, 새음반 녹음 등으로 스케줄이 많았지만 '홍길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예의바른 청년들이었다.



예성

름답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다 흥과 싸우는 장면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며 부르는 노래가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는다.

-가수가 본업이다 보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예성=오래 전부터 연기에 욕심이 있었다. 성민이도 아역 배우 출신이다.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DVD랑, 비디아가 2천500장은 될 거다. 아무래도 슈주 주니어가 멤버가 많고 메인 보컬을 맡아 '노래'로만 알려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웠다. 뮤지컬을 하면서 "아 저 친구에게 저런 면도 있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좋다. 아직은 연기의 호흡과 노래의 호흡을 이어 가는 건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배울 게 많다.

▲성민=첫작품 '아기'라는 정말 멋 모르고 했는데 이번 작품은 훨씬 부담이 된다. 선배들이 뮤지컬은 하면 할수록 힘들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거 같다. 하지만 그 힘들어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뮤지컬을 하면 긴 연습 기간을 갖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다.

▲성민=참고 인쇄하던 홍길동이 계속해서 아

내달 18일부터 두달간 서울 공연

발라드곡에 액션 등 볼거리 많아

동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몰랐다. 홍길동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홍길동이 정말 멋진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성민=서양의 의적인 로빈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금 홍길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만 이 뮤지컬을 통해 홍길동을 많이 알고 싶다. 이번 뮤지컬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고, 또 사랑도 하는 사람 냄새나는 홍길동을 보여줄 거다.

-'홍길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는 어떤 건가.

▲예성='남한산성'에서 악역을 맡다 보니 강한 느낌의 노래를 불렀다. 이번 작품에서는 발라드곡이 많은데 특히 어린 수진이와 길동이 부르는 곡이 감미롭고 좋다.

/장성=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이병훈>



<홍세화>



<은병수>



<박신의>

문화수도 이끌 전문인력 양성

표문화도시추진단-조선대, 내달부터 기획·운영자 과정 등 개설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어 갈 대규모 인력양성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과 조선대는 오는 2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창의적 시민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지닌 문화시민 양성과 문화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대 언어기반구축특성화추진기획단(단장·이승권 교수 이하 ILIS 특성화추진기획단)은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집중·심화교육과 프로젝트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시민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자 과정과 시민문화활동가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화시설 전·현직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자 과정은 문화마케팅과 문화미학,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지역자산 vs 디자인 등 이론수업과 과제훈련, 실무적응도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는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과 박동찬 광주MBC 전라기획단장, 은병수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김중휘 노리단 단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국제교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문화활동가 과정은 남도의 이해, 동양의 이해, 문화교류의 이해 등 이론과정과 팀별 프로젝트 수행으로 진행된다. 박강의 신명대표, 황봉원 전라도 닷컴 대표와 김준태 시인, 김기덕 문화재청문화재전문위원, 안톤 솔츠 조선대 교수, 유재현 상상마당 대표 등이 강의를 맡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시민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자 과정 50명, 시민문화활동가 과정 100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조선대 ILIS특성화추진기획단 홈페이지(www.ilis.or.kr)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230-657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30년 역사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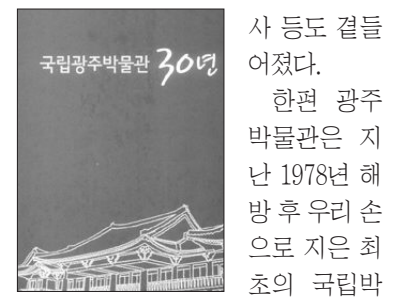
금동관 등 사진과 함께 소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의 30년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광주박물관은 최근 박물관의 역사와 유물·유적조사 현황 등을 담은 '국립광주박물관 30년(비매품·사진)'을 펴냈다.

책에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제103호), 나주 신촌리고분 출토 금동관(국보 제295호), 화산 대곡리 출토 청동유물 일괄(국보 제143호) 등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조사(1997년)와 해남 만의총 발굴조사(2008년) 등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물을 발굴했던 과정, 박물관 문화행



사 등도 곁들여졌다. 한편 광주 박물관은 지난 1978년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박물관으로, 현재 5만여점의 소장품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67회의 특별전과 105회의 학술조사를 실시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최치원 등 662명 문집 내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최치원, 이항, 박지원 등 우리나라 주요 인물 662명의 문집을 업선한 '한국문집간' 정권 디지털화 작업이 10년 만에 끝나 29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고전번역원(원장 박석무)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집

간' 정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를 기념하는 성과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낸 정권 663종 350책은 고전번역원 한국고전 DB 사이트(http://db.itkc.or.kr)에서 웹서비스를 시작한다. 속편 150책

가운데 17책도 함께 볼 수 있다.

계원필경(최치원)·동국이상국집(이규보)·익재난고(이계현)·목은집(이색)·포은집(정몽주)·삼봉집(정도전)·화담집(서경덕)·퇴계집(이황)·율곡전서(이이)·백사집(이항복)·성호전집(이익)·연암집(박지원)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문집을 시대순으로 총망라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High School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promotional text, dates (7/9 and 2/1), and contact information (234-0234).